19-W\_인물로 본 한국사 2013-12815 이동주

**<박열> (2017)**

일제강점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박열>은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 일본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고 있다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린다.

일본의 자경단은 지나가던 조선인을 마구잡이로 학살한다. 관동대학살에서 6600여명의 무고한 조선인이 학살당한다. 마구잡이 학살 이후 독립운동가 박열이 광적인 공격성을 띈 일본 사회 내에서 저항하는 모습은 22년 2개월의 독립운동가 중 최장기간 옥중생활을 한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극적으로 담아낸다.

박열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가 표방한 아나키즘은 모든 권위에 저항하며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급진사상이다. 러시아 출신의 혁명가로 아나키즘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하일 바쿠닌, 러일전쟁과 제국주의, 조선 식민지화를 반대했던 고토쿠 슈스이와 함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재평가받는 박열은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조선 최초 무정부주의 단체 흑도회 멤버가 된다. 그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로 “모든 자아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 어떤 불합리한 권위와 인위적 통일은 반대한다” 등의 어록을 남긴 것으로 알고있다.

박열의 재판은 일본 전역에 화제가 된다.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변경되고 21살에 젊은 나이에 옥중 생활을 시작한 박열은 22년 복역 끝에 자유를 얻게 된다. 일제 강점기 온몸으로 자유를 부르짖었던 개인주의적 투쟁가의 한사람으로 박열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가치있었다.